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복직:** 김영길 장로 휴무장로에서 시무장로로 복직되었습니다.
- ◎ **대심방:** 2012년 대심방을 8월 6일부터 공동체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모임:** 각 공동체장 혹은 인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월례회:** 4남선교회(52년생 이후), 1여선교회(65-61년생 이후) 월례회가 친교실과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 **등록:** 정영훈 310/ 57 Mahuhu Crescent, City 021-1689-192 청년 구역
- ◎ **출국:** 문일숙 집사 상한 마음의 치유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 새벽 기도회 본문

- 6일: 누가복음 1:67-80 혈육보다 우선 할 하나님의 나라
- 13일: 누가복음 3:21-38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다
- 20일: 누가복음 6:1-11 형식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
- 27일: 누가복음 7:36-50 용서받은 여인의 큰 사랑

갈보리
교회가
듣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사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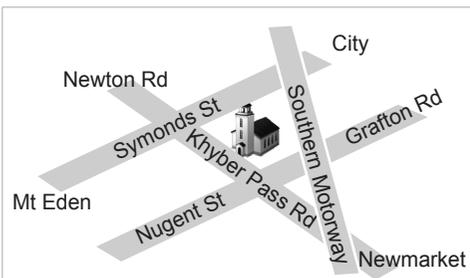


말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7월 22일

14권 30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식혜보다 진리

30인용은 족히 되는 큰 솥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집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물으니 식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 식혜를 남편을 위해 만들고 있구나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잠시였습니다.

식혜를 만들면서 한쪽에는 Gas 불에 큰 찜통(?)을 올려놓고 행주를 삶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내 서재로 올라와 주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더니 여전히 식혜를 만드는 큰 솥은 바닥에 그대로 있고 아까 행주를 삶던 찜통에 행주는 없고 누리기리한 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버리기에겐 무거울 같아서 집사람을 위한다는 기특한 생각(?)으로 머리를 감고 있는 아내에게 “행주를 삶은 물 버릴까?” 물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응”하는 소리가 들려 나도 참 괜찮은 남편이지 속으로 자화자찬 하면서 싱크대에 쏟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 글썩 그 물은 행주를 삶아낸 땀물이 아니라 다 된 식혜를 다른 통에 옮겨 한 번 더 끓인 다음 식혀려고 놓아둔 식혜였습니다. 얼른 통을 바로 세웠지만 어느 정도의 식혜는 이미 배수구를 통해 저만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잘못들은 탓입니다. 아내에게 이실직고하자 한심스럽다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식혜지, 행주 삶은 물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했지만, 유구무언이 상책이었습니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려는데 창가에 놓아둔 두 개의 꽃 화분에 물이 모자란 듯 보였습니다. 딸 아이가 키우는 꽃인데 간혹 저에게 “아빠 이 꽃에 가끔 물 좀 줘” 하던 딸의 말이 생각나 자신 있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조화입니까?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인데 저는 두 개다 생화인 줄 알고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딸과 아내는 어떻게 분별력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쌍으로 몰아세웁니다. “조화가 생화처럼 보인 게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라고 걸으며 내뱉기에는 이미 전과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리만 제대로 구분하는 목사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물인지, 꽃인지 몰라도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렇게 하루가 길게 지나갔습니다.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9:5, 9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8장 다함께
※ 성서교독	57. 시편 130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79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0:1-8 인도자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편견을 내려놓은 사람 이태한 목사
찬송	8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지난주: \$ 110.00
총계: \$ 612, 103. 19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진혜령 전도사
성경봉독 / 눅 6:37-38
설교 / 은혜의 지배 / 심창진 목사
찬송 / 은혜로다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박제란 집사
성경 / 사 10:12-28
설교 / 사사 입다2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28장
주기도 / 다함께

공동체를 위한 금주의 기도제목

1. 태국 공동체
태국에서 열리는 NIBC 선교대회가 은혜중에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필리핀 내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2. 교회연합
 - 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물론 예배 때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배준비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②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위로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수술을 앞둔 성도에게 회복과 심적인 평안을 그리고 겨울철 감기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성전 건축이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 ③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자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안에서의 형통함이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도록.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남은 해가 되도록.

HELP IN TIME OF NEED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Guidance in Time of Decision: **현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James 1:5-6 [야고보서 1:5-6]

If you need wisdom - if you want to know what God wants you to do - ask him, and he will gladly tell you. He will not resent your asking. But when you ask him, be sure that you really expect him to answer, for a doubtful mind is as unsettled as a wave of the sea that is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 경덕현 집사 제공

7월 교회알지

특별 새벽기도회:
7월 2일 ~ 7월 6일
창립 기념주일:
7월 8일 (주일)
창립 감사축제:
7월 11일 (수)

7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심준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원미경/박제란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원미경 집사
다음 주일 1부: 김영길 장로
다음 주일 2부: 김준섭 청년
8월 1일 수요기도: 박혜숙 집사
8월 1일 애찬기도: 김은희 집사
8월 5일 1부: 박덕철 집사
8월 5일 2부: 김광영 집사